

[문항 1]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자연스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때, 세 제시문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2.(가)에서 매화를 피는 사람은 사람들의 미의 기준에 따라 매화를 길렀다. 하지만 매화는 모두 병들었다. 이것이 인위적 미의 추구 때문임을 깨달은 '나'는 자연스러움으로 화귀를 다짐한다. (나)에서는 무량수전의 아름다움을 주변의 산, 건조물들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에서 찾으려 한다. 즉, 자연스러운 어울림으로부터 순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다)에서 르네상스 시기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타도 내지 않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이 요구되었다. 이때, 여성들에게 꾸민 듯 함이 드러난다면 타인의 시선에 어 여성은 우아하지 못한 여성으로 비춰진다.

하지만 제시문들은 자연스러움을 얻는 과정에서 인위적 행동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가)와 (나),(다)로 나눌 수 있다.(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할 때 인위적 행동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매화의 성장에 있어서 인위적 행동은 매화에 해가되어 매화를 모두 병들게 하므로 그저 자연의 순리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반면,(나)와 (다)는 자연스러움을 위해서는 인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나)에서는 무량수전과 주변의 조화를 찬양하며 그 덕을 의상대사에게 돌리고 있다. 의상대사의 뛰어난 안목과 풍수 사상에 의해 계산된 겹겹한 능선과의 각도의 조화, 사소한 곳까지 미쳐있는 비례의 아름다움이 무량수전의 자연스러운 멋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다)는 우아함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그를 절대 표면에 드러나지 않게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이로 인해 얻는 우아함은 인위적 노력의 결실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나)와 (다)는 모두 인위적 노력을 한다. 하지만 (나)와 (다)는 인위적 노력이 표면에 드러나야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나)와 (다)로 나눌 수 있다.(다)에서는 인위적인 노력이 표면에 드러나서는 안된다. 꾸민 듯함이 드러나는 순간 우아함을 위한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3. ~~반면 (나)는 인위적인 노력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큰 가치를 얻는다.~~ 조화등과 같은 거시적 요소와 사소한 비례의 아름다움 같은 미시적 요소의 미적 가치는 그것을 알아보는 자가 있을 때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첨삭 포인트]

1. '제시문 (가),(나),(다),는 모두 자연스러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때, 세 제시문들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실 이 문장 자체는 내용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두괄식을 통해서 준거를 잡아주시려면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시던지 그렇지 않다면 삭제하는게 낫습니다.

2. 1문단 2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제시문의 대한 요약인데 이를 요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비교문제지 요약문제가 아니거든요. 비교를 하시다보면 이 내용이 비교 문단에 서술이 되고, 이 때문에 중복서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나)는 인위적인 노력을 드러내자! 가 포인트인가요? 아닙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드러내자! 가 아니라, 자연과 인위과 조화되어야 한다가 주제입니다. 제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비교 서술을 잘못 서술하고 계십니다. (나)에서는 인위적인 노력을 겉으로 드러내야 큰 가치를 얻는다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B-

[문항 2]

제시문 (가)는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한편, 제시문 (라)에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그를 가공하여 만든 보석의 사진이 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라)를 값어치가 떨어지는 원석이 인위적으로 세밀한 가공을 거쳐 값어치가 높은 보석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인위적인 인간의 개입이 아름다움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위적인 행동을 일체 금하는 (가)의 ‘나’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간의 인위적인 행동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고 더 나은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한다. 따라서 더 아름다운 매화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똑바른 것을 베고,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곧은 것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만드는 과정처럼 높은 기술과 더 세밀한 관심, 많은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올바른 인위적 노력을 행한다면 더 아름답고 싱싱한 매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라)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심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짝거리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원석을 영롱한 아름다움을 가진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채굴에서의 착취, 상대적 박탈감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즉, 아름다움 추구를 위한 인위적 노력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위한 인위적인 행동을 금하는 (가)의 ‘나’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인위적인 통제를 가한 매화들은 아름다운 보석 이면의 사회적 문제처럼 병들고 시들었기 때문이다.

[첨삭 포인트]

- 1. 지금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하고, 전체적인 발문의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2.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라)를 해석하고 계신데, 이 관점들은 어디서 나온 관점들이가요?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아무렇게나 (라)를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제시문 (가~다)를 통해서 읽어 주셨어야 해요. 왜냐면 논술은 제시문에 기반하여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요. 현재 제시문에 기반하지 않고 문제를 푸시고 계시며 이는 논리적 비약으로 보여집니다. 제시문에 기반한 답안을 다시 작성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D -

총평

전반적으로 아쉬운 답안입니다. 특히 2번문제가 가장 아쉬운데 발문의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으나 싶습니다. 발문과 제시문에 근거해 답안을 다시 작성해 보셔서 재 첨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사전협의 없는 무단 도용,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환 논술 (煥 論述)